재미한인예수교장로회(고신) 교회교육 현황과 과제

나 삼 진 목사
(오렌지카운티 샬롬교회, Joyful Educational Ministries 대표)

I. 서론: 연구 목적과 방법

1. 연구목적

재미한인예수교장로회 총회는 설립 후 32년 동안 꾸준히 성장해 8개 노회, 128교회에 이르고 있고, 해외에 있는 고신총회 자매교단 가운데 가장 큰 규모를 가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미총회와 산하교회들이 출석교인들의 수에서 한계가 있고, 목회와 교회교육이 여전히 제한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사실이다. 이 보고서는 제32회 총회의 결의에 따라 총회교육위원회 주관으로 재미총회의 교회교육 역사와 현황을 분석하고, 앞으로 어떻게 발전해가야 할 것인지 방향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연구방법

이 논문은 두 가지 방법이 결합되어 연구되었다. 먼저는 제32회 총회의 결의로 재미총회산하 전국교회의 교육현황을 조사하기 위해 제1회 교회교육 센서스를 실시하기로 함에 따라 조사한 질문지법으로 이루어졌다. 제1차 교회교육 센서스는 2018년 7월 - 10월까지 2개월 반 동안 집중적으로 실시되었다. 제31회 총회 배부, 총회 홈페이지 공고, 노회별/교육위원별/개별적인 연락과 협력이 이루어졌다. 질문지 내용은 교회 상황(8개항), 교회학교 교육 프로그램(3개항), 교회교육 교재(2개항), 교사교육(5개항), 기타교육상황(9개항), 총회 제안사항 등 28개항으로 이루어졌다. 노회별 참여교회 수는 총 61교회가 접수되었는데, 노회별 교회 수는 다음과 같다.

〈표1〉 교회교육 센서스 노회별 참가 교회 집계

노회	남미	동부	동북	북서	서부	서중	수도	중남부	중부	계
교회 수	2	21	14	18	21	10	6	21	15	128
참가교회	-	7	2	8	20	4	3	8	9	61
참가율	0%	33	14	44	95	40	50	38	60	48

둘째는 교회교육을 책임진 담임목사와 교육실무자를 대상으로 한 직접 대담 혹은 전화 심층면접으로 이루어졌다. 이 연구가 실제적인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무작위로 추출된

목회자와 교육담당자 10인을 대상으로 면담 혹은 전화면담을 실시하였다. 연구참여자와 특징은 다음과 같다.

〈표2〉 연구참여자와 그 특징

번호	교회/주	연령대	직분	이민세대	거주지 주	특징
1	연구참여자 A	40대	담임목사	1.5세	캘리포니아	미국 대학, 신학교 졸업
2	연구참여자 B	50대	담임목사	1세	아리조나	미국신학교 졸업
3	연구참여자 C	30대	교육목사	1.5세	덴버	고등학교 이후 미국교육
4	연구참여자 D	30대	교육목사	1.5세	캘리포니아	고등학교 이후 미국교육
5	연구참여자 E	20대	교육디렉터	1.5세	캘리포니아	9학년부터 미국교육
6	연구참여자 F	40대	담임목사	1.5세	워싱턴	EM사역 경험
7	연구참여자 G	50대	담임목사	1세	뉴저지	신학 졸업, 학생사역, 유학 후 이주
8	연구참여자 H	50대	담임목사	1세	노스캐로라이나	신학졸업, 목회 후 이주
9	연구참여자 I	30대	교육목사	1.5세	캘리포니아	고등학교 이후 미국교육
10	연구참여자 J	30대	교육목사	1세	캘리포니아	EM사역 경험

면담 혹은 전화 면담은 1인당 50-60분을 기준으로 시행되었고, 필요시 30분 정도 추가로 이루어졌다. 주로 인터뷰어 교회 상황, 사역 상황, 교회교육 상황, 교회교육 현실, 한인교회의 미래 등 다섯 분야에서 하위질문 각 네 개씩 준비하여 면담을 하였다. 이 면담에서는 교회교육에서 잘 되고 있는 부분과 잘 되지 못하고 있는 부분, 교회학교에서 사용하는 교재, 교회학교의 특징적인 프로그램, 교회교육에서 중대한 시행착오들, 한인교회 교육의 미래 등을 포함하고 있다. 대화한 내용은 녹취한 결과 한 사람당 레터 용지로 평균 4-5매 정도였고, 이를 분석하여 유의미한 결과들을 정리하여 문제점을 도출하였다.[1)]

II. 재미총회 30년과 총회의 교회교육의 발전과정

1. 재미총회의 조직과 성장

재미한인예수교장로회 총회(이하 재미총회)는 1985년 11월 12일 펜실베니아주 포코노 수양관에서 총노회 조직으로 시작되었다. 총노회가 조직되기 전에 오랫동안 1978년 한명동 목사의 미국 방문 시에 노회 조직 의견교환, 1978년 황창기 목사와 정홍권 목사 중심의 개혁주의 선교회 조직, 1980년 김만우 목사 중심의 고신후원회 조직, 1982년 한국총회 선교부장의 노회조직 요청과 발기회 구성 등 오랫동안 고신교회 치리회를 조직하려는 움직임이 있어왔다.[2)] 이러한 흐름이 구체화되어 1983년 미국을 방문중이던 이근삼 박사

1) 이 발표는 일반적인 논의를 제시한 것이고, 심층 결과는 별도의 학술논문으로 발표하고자 한다.

회갑 축하 모임과 함께 제1회 고신인 모임이 있었고, 1984년 신현국 목사의 필라델피아 집회시에 교단을 조직하고자 하는 방향이 논의되었으며, 1985년 2월에는 고신인들이 모인 재미교포 선교문제에 대해 협의회로 모이면서 재미총노회 발기회로 갖고 발기문을 만들어 구체적인 준비를 하였다.[3)]

이러한 준비로 제3회 고신인 모임으로 뉴저지제일한인교회(박재영 목사), 산호세한인교회(신현국 목사), 필라델피아초대교회(임종수 목사), 템피교회(전재린 목사)등 네 교회와 고신출신 13명의 목회자들이 함께하여 수련회를 갖고, 이 자리에서 총노회를 조직하고 박재영 목사를 총노회장으로 선출했다.

총회에서는 헌법 제정위원을 선정하였으며, 재미고려신학교 설립을 위한 위원을 선정하였다.[4)] 재미총회는 조직과 함께 초기부터 기획위원회를 중심으로 한 집단지도체제를 유지했는데,[5)] 제2회 총노회에서는 신학교를 설립하기로 하고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하고 이근삼 박사를 초빙하기로 하였고, 제4회 총회에서는 총노회를 동부노회와 서부노회로 분립하면서 총회로 승격되었다.[6)] 제6회 총회에서는 신학교 설립위원회를 조직하고, 1990년 9월에 신학교를 설립하였으며, 다미선교회를 중심으로 한국은 물론 미국까지 종말론 광풍이 불 때 개혁주의 신학의 입장에서 교회의 건전한 교리 이해와 확립을 지원하기 위해 홍반식, 이근삼, 오병세 교수를 초청하여 미주 순회세미나를 개최하였다.[7)]

제8회 총회에서는 신학교 개교 준비와 함께 교장으로 박재영 목사를 선임하였다가, 1995년 이근삼 박사가 고신대총장을 정년퇴임함에 따라 그를 교장으로 청빙하였다. 이에 박재영 목사와 이근삼 박사가 이끄는 고려신학대학원을 뉴저지를 중심으로 수년간을 운영하다가 미주 한인들의 중심지 로스앤젤레스 지역에 고신운동을 전개해야 할 필요성에 합의를 하고 이근삼 박사가 로스앤젤레스 지역으로 이동하고, 동부와 서부에 고려신학대학원을 설치하기로 했다. 이근삼 박사와 실무진들의 헌신적인 수고로 재미총회 신학교는 에반겔리아대학교로 성장하면서 독립건물을 마련하였다.

재미총회는 남미노회(3교회), 동부노회(21교회, 조직교회 13), 동북노회(17교회, 조직교회 9), 북서노회(21교회, 조직교회 10), 서부노회(21교회, 조직교회 10), 서중노회(10교회, 조직교회 5), 중남부노회(23교회, 조직교회 11), 중부노회(15교회, 조직교회 6), 등으로 모두 8노회, 131교회를 이루고 있다.[8)] 그러나 그 조직교회는 65개로 절반 이상이 미조직

---

2) 박재영, "재미고신의 태동",《재미총회 10년사》, 27-31.; "재미고신의 과거"《재미고신 30년사》, 19-20.
3) 박재영, "두 번 째 10년의 감사"《재미총회 20년사》, 서울: 총회출판국, 50.
4) 박재영, "재미고신의 과거"《재미고신 30년사》, 21.
5) 박재영, "재미고신의 과거",《재미고신 30년사》, 서울: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출판국, 2015, 19-20.; 초기부터 상당한 기간 동안 박재영, 전재린, 신현국, 김만우, 조성관, 김용출 목사가 기획위원으로 봉사하였다.
6)《재미총회 10년사》, 40-41.
7) 제6회 총회 촬요, 제7회 총회 촬요,《재미총회 10년사》, 125.
8) 제30회 총회 기준. 2015 주소록 통계 기준. 미국 내 한인교회가 2018년 기준으로 4,454교회, 이중 캘리포니아가 1,375개로 집계하고 있다. 고신교회는 미국 전체 교회 가운데 3% 수준이어서 전도운동이 취약하였음을 보여주고 있다.

교회로 나타났다. 지난 30년 동안 재미총회에서 주로 총회 헌법 발간, 조직과 행정이 체계화되었으며, 신학교육과 선교 분야에서 성장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

2. 재미총회의 교육적인 노력

재미총회는 초기부터 교육문제를 논의하고, 교재개발에 대한 제안도 있었지만, 총회의 인적 물적 자원의 여건상 이 논의가 정책으로 자리잡지는 못했다. 제2회 총노회에서 상비부로서 교육부를 설치하였고, 제3회 총회에서 총회기간 세미나 개최, 교역자와 평신도 수양회 개최. 교육 사례 연구를 위한 설문조사를 갖기로 하였다. 제4회 총회에서는 주일학교 공과 연구, 분기별 '미주고신'(가칭) 회보 발행, 재교육 프로그램 준비를 결의하였다. 제6회 총회에서는 미국 주일학교 교재 연구해 발표하기로 하고, 교육현황 조사하기로 하며, 한국총회 초청 교육 프로그램을 교환할 것으로 보고했지만,[9] 실제로 이루어지지는 않았다. 총회 설립 이후 첫 10년간은 총회의 기구적인 조직에 주력하였고, 교회교육에 대해 구체적인 논의와 실현되지 못했다. 이후 교육부의 중요한 결의는 다음과 같다.
11회: 1) 회원교회의 주일학교 교사의 신앙증진과 자질향상을 위해 1년 1차 세미나를 노회적으로 개최하기로 하다.
2) 총회산하 목사, 장로, 연장교육을 위한 세미나를 연 1차씩 총회기간 갖기로 하다.
12회: 총회 기간 동안 차세대 특강을 2시간 갖기로 하다.
13회: 각 교회에서 1년 동안 교육 자료를 모집하여 교회에 보급하기로 가결하다. 21세기 교단 교육정책과 교단 홍보 자료를 제정하기로 가결하다.
14회: 교단산하 주일학교 교육의 일관성을 위하여 개교회가 사용하고 있는 교재 및 자료를 종합 분석하여 보도하기로 가결하다.
15회: 각 교회 교육과정의 통일성을 기하기로 하고, 주일학교 교재를 검토하기로 하다.
16회: 시중에 나와 있는 성경공부 커리큘럼을 조사하여 보고하기로 하였는데, 1년 동안 연구한 결과 제18회 총회에서 Great Commission 교재를 사용하기로 보고하였다.[10]
20회: 한국총회가 주관하는 해외동포목회와 교육정책협의회 참석과 경비를 허락해,[11] 제1회 해외동포 목회와 교육정책 협의회에 재미총회 대표단이 참가하였다.

지난 30년 동안 재미총회가 교회교육의 문제점을 생각하고, 그 개선을 위해 지속적인 고민과 논의가 있었지만, 실제적인 진전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것은 미국의 지역 여건과 교회의 재정여건상 목회자들이 총회 외에 별도로 모이는 것이 쉽지 않고, 또 이 문제를 연구, 집행하는 전담하는 인력이 없었기 때문일 것이다.

---

9) 제6회 총회 촬요, 《재미총회 10년사》, 124.
10) 제18회 총회 촬요, 《재미총회 20년사》, 202.
11) 제18회 총회 촬요, 《재미총회 20년사》, 224.

3. 총회 교육관련 기구 상황

재미총회의 기구적인 조직이 지난 30년 동안 체계적이고도 현실적인 고려없이 회원의 제안에 따라 즉흥적으로 이루어진 경향이 있었다. 이런 현상은 총회의 교육관련 기구의 설치와 활동에서도 볼 수 있는데, 위원회가 지나치게 세분화되어 있고, 고유 업무가 구분되어 있지 않으며, 그 조직과 운영이 효율적이지 못했다.

상비부 가운데 교육관련 기구는 교육부와 영어부가 조직되어 있는데, 같은 업무를 취급하면서 세대간 차이, 혹은 사용 언어만 차이를 보이고 있다. 제31회 총회기 까지 교육관련 상임위원회는 모두 4개였는데, SFC지도위원회는 SFC 지도를, 교육위원회는 교육에 관한 업무를, 차세대연구위원회는 차세대에 관한 연구 업무를, 가정사역위원회는 가정사역에 대한 연구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다.[12] 그러나 이들 위원회들 가운데 매년 총회 때에 조직은 하지만 절반 이상의 위원회가 활동이 없고, 보고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렇게 재미총회는 제한된 재정과 인력에 비해 지나치게 많은 상비부와 위원회를 설치, 운영함으로써 총회의 역량을 집중하여 목적에 따른 사역을 이끌어 가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이러한 현실에서 제31회 총회에서는 서부노회에서 재미총회 기구를 통합하여 효율성을 강화하는 헌의안을 제출하였고, 한 해 동안 연구하여 제32회 총회에서는 대대적인 기구개편이 이루어졌다. 그 규모는 위원회 구조가 위원회 구조로 단순화되었으며, 교육관련 기구는 교육위원회로 통일되었고, SFC가 특별위원회로 존립하고, EM위원회가 별도로 유지하게 되었다. 앞으로 각 위원회는 그 정신에 기초하여 위원회의 성격에 맞는 사업을 실제적으로 연구와 개발하여, 정책 추진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4. 한국총회-재미총회의 교육협정

재미총회는 지난 30년 동안 한국총회와 세 차례의 교육 협정을 체결하였다. 제1차 교육협정(1995)은 1995년에 재미총회장(박재영 목사)이 한국을 방문해 총회교육위원장(김병원 박사)과 교회교육 협약을 체결했다. 박재영 목사는 이 협약을 근거로 뉴저지제일한인교회와 인근협력교회를 중심으로 재미성경통신대학을 개설하여 운영하였다. 이 성경통신대학은 1995년 이후 수년 간 운영하며 한국총회 교육위원회 대표간사를 초청하여 출석수업을 갖고, 졸업생도 다수 배출하였으나 이후 중단되었다.

제2차 교육협정(2002년)은 한국총회교육위원회(위원장 이한석 목사)와 Evangelia University(총장 이근삼 박사)와 사이에 체결되었다. 이 협약에서는 EU에 성경통신대학 프로그램을 개설, 운영하여 평신도 교육을 실시하기로 하였다. 이 협정에 따라 총무처장 박대근 목사가 한국을 방문, 성경통신대학 지역순회세미나 강사로 봉사하였고, 원장 나삼

12) 〈재미한인예수교장로회 총회 규칙〉 제2장 제7조.

진 목사도 EU 여름학기 강의를 했으나, 처음 계획과 같이 EU에 평신도 개발 프로그램을 개설, 유지되지는 못했다.

제3차 교육협정(2012년)은 제27회 총회의 결의로 체결된 재미총회와 한국총회 사이에 '교육과 목회에 관한 미래 협약'이다. 이 교육협약은 교육의 본질적인 성격 규정, 양 총회 개발 교재의 공식적인 교재로 인정과 상호 사용, 교재개발의 국제적인 협력, 교육과 목회의 인적 교류, 지도자 교육과 교재 공급의 편의 제공, 해외동포 목회와 교육정책협의회의 공식 협의기관 확인 등 여섯 개 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2011년 6월 6일 훼드럴웨이제일장로교회당에서 개최된 제7회 해외동포 목회와 교육정책 협의회에서 협약을 체결하기로 합의하고, 제27회 총회에 보고하여 총회 석상에서 재미총회(총회장 박종창 목사, 교육위원장 박대근 목사)와 한국총회(총회장 정근두 목사, 교육원장 나삼진 박사)의 서명으로 체결되었다.

재미총회는 이 협약에 따라 바이블키 성경대학를 재미총회 교육 프로그램으로 도입하도록 하고, 2012년 10월 15-16일에 로뎀장로교회당에서 개최하여 25명의 목회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8기 바이블키성경대학 지도자 세미나를 개최했다. 또 제28회 총회 기간에는 총회교육위원회 주관으로 한국총회 교육원장 나삼진 박사가 '현대 기독교교육의 최근 동향과 교육목회'라는 주제로 목회자 세미나 강의를 인도하였다. 그동안 재미총회 산하 몇 교회에서 '복있는 사람'을 통한 말씀운동에 동참하였는데, 로뎀장로교회는 총회교육원장을 초청하여 큐티 세미나를 개최하였고, 《복있는 사람》을 매월 300권 이상씩 사용하기도 했다.

재미총회의 이러한 교육협정은 총회의 총의를 모아 실제적이고 유효한 전략으로 교육문제를 접근한 것이 아니라 소수의 지도자 중심으로 운영되어 총회의 사역으로 확장되지 못하였다. 총회교육위원회는 해외동포교육과 목회정책협의회 참가하고, 총회에 보고서를 내는 정도이며, 아직 중장기적인 총회교육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지는 못하고 있다. 재미총회 산하 교회 가운데 생명의 양식 교육과정 '그랜드스토리'나 '한영대조 세례문답' 교재를 사용하거나, 《복있는 사람》 큐티 교재를 사용하지만, 총회의 정책 보다는 목회자의 개별적인 판단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는데, 앞으로는 더욱 긴밀하게 미국-한국총회간에 교육 협력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5. 재미총회 교회교육 분야의 토론

재미총회 교육 혹은 SFC와 관련된 여러 토의는 한국총회와 해외 네 총회가 함께 주관하는 해외동포 교육과 목회정책협의회를 통해 이루어진 바 있다.[13] 나삼진은 "해외한인교회의 목회와 교육"에서 해외총회의 개괄적인 실정과 해외교회와의 협력방안을 제안하

13) 총회교육원 편, 《해외동포 신앙교육》, 서울: 생명의 양식, 2008.

였고, 박대근은 “재미한인교회의 목회와 교육”을 통해 재미총회의 역사와 교육현황을 보고하였다(이상 제1회, 2005). 이듬해 재미총회 주관으로 EU에서 모인 제2회 협의회에서 박경춘은 “재미총회 차세대 연구위원회 사명과 전망”을 통해 언어를 중심으로 한 이민교회의 현실을 파악하고, 차세대위원회가 논의하는 영어목회의 필요성, 영어목회와 교육부서의 구권의 필요성, 교육교재에 대한 연구, 영어권 목회자 양성과 리쿠르트를 제안한 바 있다. 또한 김창연은 “재미SFC의 방향과 가능성”을 통해 재미SFC의 사역방향을 개혁신앙자 양성, 교단 지도자 훈련, 그리고 선교사 배출을 제안하고 있다(이상 제2회, 2006). 그리고 나삼진의 사회와 박대근, 박종창 등 재미총회 대표와 대양주와 기타 해외교회 대표단이 참여한 좌담회 “해외한인교회의 목회와 교육문제와 대안 모색”에서는 실제적인 현장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제3회, 2008년). 윤덕곤은 “재미한인교회의 교육과 목회현황”을 발표한 바 있다(제7회, 2011).

이러한 논의가 계속되면서 세례교육 교재의 한영대조판을 발간하게 되었고, 지금은 바이블 키 성경탐구 교재 영한대조판 번역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한인교회 교육문제를 위한 논의는 뚜렷한 성과를 얻지 못하였다. 이는 미국이 워낙 광활하고, 한국총회 내부 사정과 재미총회에서의 전문인력의 부재와 재정적인 뒷받침이 이루어지지 않아 진전을 보이지 못해 왔다.

III. 제1차 교회교육 센서스를 통해 본 재미총회 산하 교회와 교육 현황

1. 재미총회 산하 교회 상황

1) 교회의 규모

〈표3〉 교회의 규모

구분/명	20미만	21-30	31-50	51-80	81-150	151-250	251-500	501이상
교회 수	11	14	8	7	12	3	6	1
%	18	23	13	11	19	5	10	2

〈표3〉에서 보는 바와 같이 30명 미만이 25교회로 41%를 차지하고, 50명 미만의 작은 교회가 33교회로 전체 54%를 차지하고 있다. 미국 한인교회에서 성인 성도 50명 출석이면 자립하는 교회로 볼 수 있을 것이지만, 이 센서스에서 전체 재미총회 교회들 가운데 작은 교회가 응답율이 더 낮을 가능성을 고려하면, 총회산하 교회들 가운데 작은 교회 비율이 이보다 더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교회의 현실은 재미총회의 교육정책 수립과 추진만 아니라 선교정책과 전도정책을 수립하는데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2) 교회 예배실 유지 형태

〈표4〉 교회의 예배실 유지 형태

구분	단독교회	미국교회 임대	오피스/상가임대	공공시설 임대	가정집	기타
교회 수	30	20	5	3	1	2
%	49	33	8	5	2	3

〈표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재미총회의 교회 건물의 유지 형태는 단독교회가 30교회, 미국교회 임대 20교회, 오피스/상가 단독건물이 5교회, 학교/공공시설 임대 3교회, 가정집 1교회, 기타 2교회로 한인교회 임대 등으로 파악되었다. 기타 2교회 가운데는 한국교회 임대도 포함되어 있었다.

3) 교회의 예배시간

〈표5〉 교회의 예배시간

시간	60분	70분	80분	90분	100분	120분	135분
교회 수	10	11	12	5	3	3	1
1) %	16	18	20	8	5	5	2

〈표5〉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재미총회의 주일예배의 시간은 60분, 70분, 80분이 각각 10교회, 11교회, 12교회로 비슷하였고, 90분 5교회, 100분 3교회, 120분 3교회, 135분 1교회로 나타났다. 주일예배 시간에 대해 응답하지 않은 교회는 16교회였다.

4) 직분자 현황

직분자 현황이 질문지에 포함되어 있었으나, 질문지 취합이 늦어져 이를 분류할 수 없었다. 직분자의 현황은 교회의 상황을 파악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5) 성인 훈련 프로그램

〈표 6〉 교회 훈련 프로그램

프로그램	성경공부	제자훈련	전도훈련	구역장	직분자	교사훈련	새신자	가정교회
교회 수	33	32	8	31	31	19	8	5
%	54	52	13	51	51	31	13	8

〈표 6〉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교회 안에서 성도를 위한 성경공부 프로그램은 성경공부 33교회, 제자훈련/사역훈련 32교회. 전도훈련 8교회, 구역장 훈련 31교회, 직분자 훈련 31교회, 교사훈련 19교회, 새신자 교육 8교회, 가정교회 5교회였다. 성경대학, TEE, 목장 리더교육 등을 실시하는 교회도 있었다. 교회 예배 외에 훈련 프로그램이 전혀 없는 교회는 11교회였다. 규모를 갖춘 교회에서는 여러 프로그램을 복수로 설치, 운용하고 있었지만, 교육과 훈련도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뚜렷하였다. 교회 프로그램이 없는 경우는

참여자의 부족이나, 목회자의 이중직과도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인교회 목회자들의 사역 특성을 고려할 때 지도자 세미나 참석의 기회가 부족한 것도 원인이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이러한 프로그램 외에 교리문답 교육을 체계적으로 시행하는 교회가 있었고, 선교훈련을 실시하는 교회가 있었다.

6) 지역사회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경우

지역사회 봉사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는 교회의 수는 35교회(57%), 26교회는 시행하지 못하고 있었고, 준비중인 교회가 11교회가 있었으며, 적정한 프로그램이 부족하다는 응답이 있었다. 사회봉사 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 준비하기에 어려움에 대해 14교회가 봉사인력의 부족을 가장 큰 어려움으로 꼽았고, 적절한 프로그램의 부족을 4교회가, 지역사회의 호응도와 예산 부족을 한 교회씩 응답했다. 두 교회는 적절한 프로그램의 부족을 응답하고 있다.

-어린이 사역: 유치원, 한국학교 등.
-지역사회 돌봄: 노숙자 돕기, 홈리스 푸드 사역들, 장애우 섬기기, 소방서와 경찰서 지원, 입양아 초청 등.
-실버 사역: 실버, 지역 양로원 방문 음악회 등.
-문화 사역: 한미문화센터, 지역 도서관에 신앙도서 기증, 한국전 참전용사 초청 만찬과 음악회 등.
-특정 필요 사역: 엄마들 모임, 상담모임, 재정관리, 마을농장 협력, 신학교 지원 등.

많은 교회가 생존에 급급해 지역사회 봉사 프로그램을 운용하기 어렵고, 그 이유는 봉사인력의 부족과 교육부재로 나타나고 있다.

2. 교회학교의 상황

1) 교회학교의 조직 형태

〈표8〉 교회학교 조직형태

형태	미취학부			초등부	중고등부		
부서	영유아부	유치부	미취학통합		중등부	고등부	중고통합
교회 수	22	20	17	37	5	7	45
2) %	36	32	27	60	8	11	73

미취학 아동의 교회학교 운영상황은 영유아부 22교회, 유치부 20교회, 미취학아동 통합운영 17교회, 초등부 37교회, 중등부 5교회, 고등부 7교회, 중고등부 통합 45교회로 나타났다. 교회학교 조직의 형태에 대한 응답은 주로 초등부, 중고등부 통합, 대학청년부 통합 형태로 유지되고 있었다. 특히 교회학교 미취학부는 3교회, 초등부는 24교회, 중고

등부는 4교회가 없는 것으로 파악되는데, 이같이 높게 나온 이유는 중복하여 표기하였고, 이를 학생 존재와 교회학교 존재에 대해 구분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대학, 청년들의 경우에는 대학부 9교회, 청년부 3교회, 대학청년부 통합운영 22교회로 나타나 27교회가 청년들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와 별도로 청년부부회 운영교회가 2교회로 집계되었다.

2) 교회학교 존재 여부

〈표 9〉 교육기관 존재에 대한 한국총회와 재미총회의 비교

구분	영유아부	초등부	중고등부
한국총회	60%	72%	67%
재미총회	70%	53%	69%
두 총회 비교	+10%	-19%	-2%

앞에서 다룬 교회학교 존재형태는 교회학교 존재가 예상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영유아부 교육기관이 있는 곳이 70%, 초등부 53%, 중고등부 69%등으로 나타났다. 이를 한국총회와 비교하면 한국총회의 경우 유아유치부가 62%, 유초등부가 73%, 중고대학부는 68%가 유지되고 있는 것을 파악되고 있다.[14)]

이같은 통계는 재미총회와 한국총회의 경우를 비교할 때 크게 다르지 않는 경우로 한국교회의 미래가 어둡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한인교회의 경우도 자라나는 세대의 교육기관이 존재하지 않는 일세교회로서의 특징을 계속 유지한다면 향후 교회의 미래를 어두울 수밖에 없다. 교회는 총회 차원에서 영어 사용 청소년 사역자들을 격려하고, 이들이 교회의 지도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기틀을 마련해 주어야 할 것이다.

3) 교회학교 교재

교회학교 교재 가운데 영어를 사용하는 교회의 교회학교 교재는 통일된 흐름을 유지하지 못하고 있었다. 제16회 총회에서 Great Commission 교재를 우수한 교재로 추천한 바 있지만, 이것이 총회 산하교회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것 같다. 교재에 대해 Gospel Light와 Gospel Project가 비교적 높은 점수를 받았으며, 가장 만족도를 표시한 교회는 Bible Studies For Life로 최고점을 받았다. Gospel Light, Group의 Faith Weaver를 사용하는 교회가 있었다. 한국총회 교재를 사용하는 경우 학습세례문답 교재, 그랜드스토리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

14) 조성국 외, 오늘의 주일학교, 어떻게 할 것인가?: 다음세대의 출석감소 원인분석과 성장 대안 마련에 대한 연구보고서, 서울: 총회교육원, 2017. 19. 주일학교 부서가 낮은 교회는 농어촌지역에 산재한 노회들로, 이는 미미 감소가 시작되었고, 1년 동안 유아유치부는 3%, 유초등부는 2%, 중고등부의 경우는 2%가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이 기간 동안 통합측은 전체 8,300교회 가운데 50%가 주일학교가 사라졌다는 보고를 하고 있는데 고신총회의 경우 적게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각 교회학교는 대개의 경우 교재 사용이 담당교역자에게 맡겨진 것으로 보이는데, 1차적으로 추천 교재를 사용하도록 권장하고, 장기적으로는 미국 현실과 한국 문화를 고려한 한인교회를 위한 교재 개발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총회교육위원회에 요청할 사항으로 많은 교회에서 교재의 추천과 개발을 꼽고 있다.

4) 교회학교 언어 사용문제

그와 함께 교회학교에서 사용언어와 관련하여 한국어 사용과 영어 사용에 대한 질문이 포함되어 있었으나, 응답교회 가운데 소수의 교회만이 이를 구분하여 작성하였기 때문에 유의미한 결과를 얻을 수 없었다. 이에 대해서는 별도의 심화된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5) 교육의 수준 평가

교회 교육의 수준을 평가하는 질문에 응답한 교회 가운데 형식적으로 운영한다는 교회가 1교회, 교회가 2교회, 보통 16교회이지만 19교회가 내실있게 운영하며, 14교회는 우수하다고 평가하고 있다. 성인 교육 프로그램에는 4교회가 우수하다고 평가하고 있다.

3. 교육환경과 설비와 어려운 점

1) 교육기자재

교회교육 기자재가 충분한가에 대한 설문에서는 대부분의 교회가 빔 프로젝트, 컴퓨터, VTR, TV, 키보드 등의 시설을 갖추고 있었다. 교육 기자재가 충분한가에 대한 질문에 31교회가 응답하였는데, 매우 그렇다 6교회, 그렇다 8교회, 보통이다 15교회, 부족하다 2교회가 응답하였고, 31교회는 응답하지 않았다.

2) 교육시설

교육시설과 장소에 대해서는 학생을 수용하기에 충분하다고 응답한 교회 5교회, 그렇다 8교회, 보통이다 10교회, 부족하다 10교회였다. 성경공부 장소에 대해서도 비슷했는데, 충분하다 7교회, 그렇다 6교회, 보통이다 9교회, 부족하다 10교회였다.

3) 교회학교에서 어려운 점

교회학교에서 가장 어려운 점들을 봉사인력과 교육활동 부재를 18교회가 응답하였고, 부모들의 무관심 3교회, 학생들의 무관심 1교회, 예산 부족 3교회, 시설 부족 2교회, 기타로 응답한 교회가 4교회였는데, 이들은 교육시간 부족, 시설 부족, 교사 부족, 봉사자 훈련 부족 등을 곱았으며, 영어 사용 문제도 중요한 과제였다.

4. 교사교육

1) 교사 교육 실시 여부

교사교육에 대한 질문에서 응답한 교회 가운데 교사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교회 4교회, 자체 프로그램이 있지만 비정기적으로 시행하는 교회 21교회, 교회밖 전문기관에 참여하는 교회 4교회로 29교회가 교사교육을 정기적, 혹은 비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었다. 24교회 39%의 교회는 교사교육을 실시하지 않고 있었다. 교회학교의 안정과 발전에서 교사의 책임과 역할이 중요하다는 측면에서 교사교육은 더욱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교회에서 교사교육이 잘 시행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현실을 개선하고자 하는 의지가 높았다. 총회적인 교사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할 경우 참여 의사에 대한 질문에 61교회 가운데 23교회가 참여하겠다고 응답하였고. 관심이 없다 2교회, 프로그램과 상황을 보아 결정하겠다 4교회, 기타로 응답한 교회가 있었다. 이 경우는 여건과 상황, 언어와 문화의 차이, 강사의 전문성 부족이 예상되거나, 교회적으로 목회방침에 따라 통성경학교 계획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있었다.

2) 교사교육 방법 여부

교사교육 방법과 관련하여 교회 안에서 교육관련 세미나 특강을 실시한 교회 16교회, 교회교육관련 총회나 노회의 지도 7교회, 교회교육 관련 책이나 논문 읽음 17교회, 교회교육 현장 방문 3교회, 이 모든 활동을 한 교회도 2교회도 있었다. 27교회가 활동을 하지 않았다고 응답하였다. 어떤 노회의 인근지역에 소재하고 있어 노회 단위의 연합교사교육 활동이 있었는데, 중형교회가 교사교육을 위해 외부 강사를 초청할 때 인근의 노회 산하 교회들을 초청, 함께하는 것도 효과적인 대안이 될 것이다.

3) 교사교육의 주체

교사교육을 실시할 경우 담임목사가 직접 담당하는 교회 8교회, 부서 담당교역자 10교회, 외부강사 4교회로 나타났으며, 담임목사와 담당교역자가 함께하는 교회도 있었다.

5. 교회 교육비 예산

교회교육비 예산에 대해 1,000달러 미만 2교회, 1,000-5,000달러 6교회, 8,000달러 미만 3교회, 10,000-30,000달러 5교회, 30,000-90,000달러가 4교회로 나타났고, 최고의 지출교회는 예산의 23.25%를 지출하면서 교역자 사례를 포함해 279,800달러가 최고로 기록되었다.

백분율로 가장 높은 교회는 중소형교회로서 150,000달러 예산에서 교역자 사례를 포함

한 교육 예산이 30%를 차지하는 경우가 있었다. 교육비 예산이 전혀 없거나 표기되지 않은 교회도 26교회가 있어 백분율로 41%에 해당되었다. 교육비 지출이 많은 교회는 교역자 사례 포함 171,744달러가, 교역자 사례를 제외하고는 92,880달러를 지출하는 교회로 확인되었다. 백분율로는 규모가 큰 교회가 상대적으로 낮은 편인데, 이는 작은 교회가 교육비 지출을 위해 무거운 짐을 지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교육비 예산에 대한 표시의 경우도 어떤 교회는 제한없이 청구되는 대로 지급하는 교회도 있었다.

6. 총회교육위원회 제안사항

질문지 마지막에 총회교육위원회에 제안하는 사항을 기술하도록 요청하였는데, 이에 응답한 교회는 모두 15교회였다. 이에 대한 요청이 없었던 것은 교회학교가 없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이유일 것이고, 총회에 기대하기 어렵다거나, 실천에 대한 기대가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짐작된다. 이것은 총회 산하교회가 지역적인 광대함 때문일 수도 있을 것이다. 교회가 총회교육위원회에 요청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바이블 키 성경대학' 프로그램 도입.
-70세 이상의 노년교육 프로그램 준비.
-교회학교 교재 안내 혹은 개발: 교회학교 교재(한, 영)소개, 교육교재 채택 자문, 1.5세, 2세 교육에 맞는 교재 개발, 체계적인 영어 교재 개발과 교사 훈련, 성경을 전체적으로 배우는 교재 개발 등.
-교사교육 프로그램: 교사교육용 필독서 소개, 유스 그룹의 교사수련회 개최 요청, 성공적인 교회학교 운영사례, 연합교사수련회, 훈련된 교사 파송, 교사교육을 위한 실제적인 교재나 정기간행물 보급 등.
-교단의 신앙과 신학정신의 계승
-지도자 교육: 지도자 혹은 교사 수련회 제안
-제직 교육 강의안 및 메뉴얼, 교회용 구역공과 시리즈, 주일학교 설교 웹 사이트 운영
-단기 선교에 대한 프로그램 준비와 시행: 이는 선교위원회, EU, 혹은 KPM 미주지부가 고려할 사항으로 파악된다.

교회교육 센서스의 분석 결과 재미총회 산하교회들의 교회교육은 전체적으로 교육에 대해 시설, 교육비 예산, 교회학교 운영, 교육의 효율성에 있어서 상당한 수준을 이루고 있음이 파악되었다. 교회학교의 교육기관을 유지하는 교회의 비율이 한국총회의 경우보다 상당히 높았다. 그러나 이러한 응답은 소규모교회의 경우 응답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재미총회 전체의 교육이라고 보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된다. 이 질문에 응답하지 않은 다수의 교회는 소규모 교회라 교회교육 기관이 없거나, 소수의 학생들로 교육

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것이 중대한 이유로 짐작되기 때문이다.
총회가 교사교육 프로그램을 계획하여 추진하더라도 내용을 보고 결정하겠다는 경우가 교회가 있었다. 이것은 재미총회의 교육, 전도, 선교정책 결정에 교회의 앞으로 이와 같은 경우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생각된다. 총회의 결정에 따라 전국교회가 바로 협력하는 한계가 있을 것이다.

IV. 재미총회와 한인 교회의 교육의 현실

미국한인교회의 역사는 최초의 한인교회가 하와이 사탕수수 밭 노동이민자들을 위해 연합감리교회가 설립된 것을 기준으로 할 때 올해로 114년의 역사를 갖게 되었다. 미국 이민과 한인교회의 성장은 미국이 이민정책과 관련이 있고, 제2차 세계대전과 한국전쟁 이후 1968년 케네디 대통령의 신이민정책이 시행된 이후 본격화되었다. 1960년대 이후 유학생들이 중심이 되어 교회가 설립되기 시작하였고, 초기 목회자의 다수는 유학을 마치고 미국에 정착한 경우이다. 1990년대 이후 미국의 여러 신학교육기관에서 기독교교육학을 연구, 학위를 취득하였지만, 대부분은 한국으로 귀국해 교수로 정착하였고, 한인신학교육기관에서 가르치는 교수들도 이 문제에 대해 연구가 깊지 못했다.

1. 한인교회의 현실

미국 한인사회는 수년 동안 이민자가 급격히 줄어들고 있다. 한국의 경제적인 수준과 국민들의 삶의 질이 개선되고, 재외동포 노년층의 이중시민권 허용등의 조처들이 실현되면서 역이민도 증가하고 있다. 게다가 조기유학 붐이 사라지면서 1세의 유입이 줄고 있다. 앞으로 한인교회는 1세 유입의 감소와 함께 이민 역사가 오래되면서 미국에서 교육받은 1.5세 혹은 2세들이 주를 이룰 것으로 전망된다. 게다가 성인이 되는 자녀들로 향후 30년 안에 1세 중심의 교회가 급격히 쇠퇴할 것으로 보인다.
한인교회는 미래를 위해 2세들과 함께해야 하는데, 2세 사역자들의 리더십을 세워주고, 이들과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신앙과 사역철학을 공유하며, 1세의 경건과 헌신을 전달하며 앞으로 이들이 소신을 가지고 목회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갖추어야 할 것이다. 한인교회의 경우 EM이 한 지붕 두 회중으로 하여 공동목회 형태로 발전되어야 하며, 이들의 지도력을 인정하고 EM회중의 독자적인 사역이 가능한 체제를 갖추어야 할 것이다.

2. 주일학교 사용 언어의 문제

한인교회가 교육현장에서 한국어와 영어 가운데 어느 것을 주된 교육언어로 사용하는가

가 많은 교회의 숙제가 되고 있다. 각 지역의 초대형교회들은 대부분 한어부와 영어부로 구분되어 있어 학생들의 형편에 따라 선택적으로 참여할 수 있고, 중형교회나 작은 교회들은 교회의 역사와 구성원들의 성격에 따라 한국어와 영어를 선택적으로 사용한다.

뉴저지제일한인교회는 박재영 목사가 중심이 되어 1979년 뉴욕과 뉴저지 주를 중심으로 하여 SFC수련회를 개최하여 상당한 성과를 거둔 바 있다. 그러나 많은 한인교회에서 고등부를 마치고 교회와 집을 떠남으로 교회를 떠나는 경우가 많아 강상석 목사 담임으로 부임한 이후 주일학교는 고신총회의 '생명의 양식' 교육과정 '그랜드스토리'를 공식적인 교재로 사용하고 있고, 중고등부에 올라가면서 영어로 교육하고 있다. 한글 교재를 사용은 교회와 가정, 부모와 지도자들과의 깊은 유대감을 갖게 되어 2세들이 성인이 되어서도 교회를 떠나는 경우도 적은 것이 장점으로 보고하고 있다.

그러나 영어를 사용하며 성장하는 학생들에게 한글 교재는 사실상 외국어 교재로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을 충분히 이해할 수 없다는 난점이 있다. 이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로 한인교회에 맞는 영어 교재 개발과 사용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3. 교육담당 교역자의 문제

한인교회들이 평균 50명 미만의 작은 교회이고, 재미총회도 30명 미만이 41%, 50명 미만이 54%를 차지한다. 대부분의 작은 교회는 인적 자원의 부족, 재정의 한계, 시설의 한계를 갖고 있다. 그 가운데 가장 어려운 문제는 교육담당 사역자를 채용하는 것이다. 교회가 2세 EM사역자들을 채용할 경우 재정부담이 크다(로스앤젤레스경우 전임사역자 3,500달러 수준, 주 15-20시간 주말 사역자 1,200달러 수준). 담임목사에게 기본적인 생활이 가능하게 사례를 할 수 없는 교회의 현실에서, EM사역자들을 세우는 것이 용이하지 않다. 그래서 다수의 사역자들은 교사, 학원 강사, 비즈니스 등의 일을 하고, 주말 중심으로 사역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다.

이러한 현실 때문에 교회에서 목회자 자녀들이 교육을 담당하는 경우가 많다. 이는 작은 교회로서 교육담당 교역자 채용에 따른 재정을 절약할 수 있고, 목회자의 목회방향과 일치된 교육을 할 수 있으며, 이들이 목회자의 심정으로 깊은 사랑으로 학생들을 돌보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목회자 자녀들이 신학교육 기관 교육과 훈련과정을 거치지 못하였기 때문에, 신앙교육을 종합적이고도, 체계적으로 해 학생들을 균형잡힌 그리스도인으로 양성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영어가 한계가 있는 1세 담임목사와 1.5세, 혹은 2세 사역자들과의 커뮤니케이션의 한계를 지적하고 있었다. 2세 사역자들이 겪는 어려움은 담임목사와 소통이 되지 않고, 혼자 버려져 있다는 것이다. 담임목사는 특별히 사역자들과 긴밀한 관계를 가져야 한다. 조사에 따르면 담임목사와 교육담당 교역자가 정기적인 모임이 적었고, EM사역에 대한 대

화가 충분하지 않았으며, 담임목사의 일방적인 지시나 요청이 많은 것으로 2세 사역자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사역자들은 사역에 대해 모든 것을 혼자 결정하고 사역해야하기 때문에 시행착오에도 목회자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사역자들은 이 문제에 대해 목회자의 관심과 격려, 목회부분에 대해 자문을 듣기를 바라고 있다. 그러나 1세 목회자는 언어 문제로, 1.5세 교육지도자는 문화의 차이로, 2세 교육지도자는 관심의 차이로 깊은 유대감을 갖지 못하고 있었다.

4. 주일학교가 없는 교회들

많은 한인교회들이 규모가 작아 주일학교가 없는 교회가 상당수가 있다. 이번 센서스에서 교회학교 해당란에 응답하지 못한 교회는 주일학교가 없는 교회일 것이다. 물론 주일학생이 교회에 함께 예배하는 경우가 있겠지만, 교회가 일세 중심으로 운영되면서 교회가 노령화되어 교회학교를 운영하지 못하는 것이다. 이런 교회는 소수의 자녀들을 교회교육 시스템이 잘 구축되어 있는 대형교회에 보내기도 한다. 목회자 자녀가 교육을 담당함으로써 교육을 맡은 이들의 사회적 관계 형성을 위해 자녀를 대형교회에 보내는 경우도 있다. 한국교회의 경우 30% 이상의 교회가 주일학교가 없는 교회라고 보고되고 있지만, 한인교회는 이에 대한 구체적인 통계도 없는 실정이다.

5. 소규모 교회학교

소규모 교회라 교회교육을 담당할 교역자를 채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청소년도 주일예배에 함께 참여하고 오후에 별도의 성경공부를 갖는 경우와 교육을 맡은 목회자 자녀들이 1부 예배에 참여하고, 2부 예배 시간에 학생들을 위한 성경공부를 실시하는 경우가 많다. 이런 경우 지도자가 전문적인 신학교육을 받지 않아 신앙적인 훈련에서 종합적이고도 체계적인 신앙교육에 어려운 점이 있다.

6. EM 사역의 한 모델

1세 중심의 한인교회에서 EM사역에 대해 오랫동안 고민하여 한 지붕 두 교회의 체제를 갖추는 교회도 있다. 서부노회의 대표적인 로뎀장로교회는 어린이와 청소년을 함께 아우르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보고, 오랫동안의 경험과 시행착오를 거쳐 이 체계를 택한 것이다. 1세 목회자가 있을 때 오랜 논의를 거쳐 교회의 교육정책으로 이같이 확정해 실시하고 있다. 이 교회의 경우 초등부와 고등부 까지는 주일학교의 조직을 가지고 있고, 대학부 이상은 함께하는 2세교회로 옮겨간다. 이 모델은 한인교회의 현실적인 선택과 2

세 교회를 위한 봉사로 평가받을 수 있으나, 이 시스템이 계속되면 결국 교회 안에서 성인 2세가 없어지게 될 어려움에 빠질 수 있다는 점에서 체계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V. 재미총회와 한인교회 교육 활성화 과제

1. 교회교육 지도자 양성 문제

최근 10년 동안 미국 신학교육기관에서 목회자 지망생들의 수가 현저하게 떨어지면서 비상이 걸렸다. 이런 신학생 수의 감소는 한인들도 마찬가지인데, 한인교회가 교육사역자를 구하는 것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오늘날의 시대정신이 청년들에게 신앙과 신학에 관심을 갖지 못하게 해, 청년들이 신학교 입학을 외면하고 있고, 신학을 공부하고서도 주말사역으로 이중직을 갖거나 세속적인 직업으로 돌아가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 그 주된 이유는 1세 중심의 교회환경에서 자신의 역할이 전문인력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고, 목회자나 교회 지도자들과 소통하지 못하고 있으며, 경제적으로도 사역에 따른 충분한 대우를 받지 못해 낮은 자존감과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으로 분석된다.

이런 면에서 비전임 사역자 양성이 그 대안이 될 수 있다. 미국교회의 경우 National Youth Worker's Convention, Group Convention과 같은 지도자나 교사를 위한 컨벤션으로 지도자 재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있지만, 한인교회의 참여가 부진하다. 교회교육 분야에서 오랫동안 봉사하며 이들에게 재교육 기회를 제공해 주지 못해 탈진상태를 보인다. 교회교육 현장에서 교사로 오래 사역한 일꾼들을 발굴하여 성경과 신학, 기독교교육의 이론과 실제 훈련을 지원하고 교육부서를 담당하게 하는 것도 한 방식일 것이다. 미국에서 대학 이상의 교육을 받고 전문적인 직업을 가진 교회 출신의 평신도들을 양성해 교육을 맡기고, 정기적인 재교육으로 그 역량을 키워가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다.

2. 한인교회 교회교육 교재 개발의 문제

2016년 말을 기준으로 약 4,400여 개로 추산하고 있다.[15] 교회교육 현장에서 교재사용은 미국 교단에서 발행하는 교재를 사용하는 경우, 미국 전문출판사에서 발행한 교재를 사용하는 경우, 한국교회 발행 교재를 사용하는 경우, 그리고 교회학교 교재 없이 교육

15) 이는 2017년 말 미주에 산재한 한인교회 4,421교회의 2.96%의 수준이다.「크리스찬 투데이」2017. 1. 24. www.chrstiantoday.us. 2017. 6. 12. 인출. 같은 기간「미주크리스찬신문」통계로는 2016년 말 미국의 한인교회는 4,018교회이며, 교단별로는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KAPC) 430개, 미국장로교(PCUSA) 320개, 해외한인장로회 230개, 미주장로교(PCA) 167개, 북미개혁교단(CRC) 87개, 미국개혁장로교(RCA) 37개로 집계되었고, 재미고신은 북미개혁교단 교회 수 보다 많은 중형교단임에도 불구하고 통계가 잡히지 않았다. 이같은 유의미한 차이는 미등록교회가 많거나 혹은 교단 표기방식의 차이로 보인다. 국민일보, 2017. 1. 20.

지도자에게 맡겨진 경우등이 있다. 앞의 세 교재는 각각 문화적인 차이로, 마지막 경우는 교사들이 전문적인 교육적인 훈련을 거치지 않은 이들이 대부분이어서 자신이 배우고 경험해 온 신앙을 전수하는데 그치고 있다.

교회교육 교재 사용의 현실을 고려할 때 한국총회와 재미총회가 협력하여 한인교회를 위한 교재개발에 착수할 수 있을 것이다. 한인교회의 새로운 교육과정 보다 '그랜드스토리'같은 교재를 미국 문화 속에서 성장하는 한인교회 어린이들의 현실을 고려한 적용점을 개발하면, 적은 경비로 가능하고, 상당한 반응을 얻을 것이다. 이를 통해 적은 경비와 노력으로 미국과 영어권 해외 한인교회에 고신교회의 영향을 크게 미칠 수 있을 것이다.

3. 교회교육 언어의 문제

조사 결과 교회교육현장에서 언어사용 문제는 의견이 극명하게 달랐다. 교육기관에서 영어를 사용해야 한다는 목회자는 복음의 내용을 이해하고, 사용언어와 관계없이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복음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따라야 하는데, 이해가 어려운 한국어보다 영어를 사용해야 한다는 요구가 있었다. 한국어를 사용하기를 원하는 지도자들은 2세들이 학교교육 후 교회를 떠나지 않기 위해서는 한국어와 한국문화, 그리고 한인교회와 가정과의 깊은 유대가 있어야 한다는 점이 함께 지적되었다.

한인교회에서의 언어의 문제는 유럽 출신의 백인사회에서의 역사적 경험에서 교훈을 얻을 수 있다. 네덜란드나 독일어권교회가 이민 1세까지는 모국어를 사용하다가 이민 역사가 오래 되면서 모국어 보다 영어 사용으로 변화되었음을 볼 수 있다. 한인교회도 이민 역사가 진행되어 한 세대가 지나면 자연스럽게 영어를 사용하는 회중으로 바뀔 가능성이 많은 것이다. 다음세대는 한인이 중심이 된 가운데 정서가 비슷한 아시아권이 모이는 다민족교회로 발전해 나가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현실로 볼 때 교육현장에서 영어를 사용하는가 한국어를 사용하는가는 철학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교회 구성원들의 이민 역사의 정도에 따라 달라지는 것으로 보인다.

한인교회의 미래와 관련하여 1세 목회가 영어 사역으로 변화되어 가기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1세 교회가 자연스럽게 2세 교회로 전환되기 보다는 1세 교회의 소멸과 2세 교회의 새로운 등장이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한 인터뷰어의 경우, 15년 전 교회교육 사역자 시절에 예상했던 것과 달리 목회 환경이 변화가 있었던 것을 보면 변화를 속단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다는 의견도 있었다.

4. 교회 공동체성 강화와 가정의 협력

교회교육에서 교회의 하나됨, 공동체성 강화 노력을 기울여야 하고, 가정과 교회, 부모

와 교사의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한인교회에서 자라는 많은 자녀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진학하면서 가정을 떠남과 함께 'silent exodus' 현상을 경험한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교회와의 신앙적인 유대와 공동체성이 강화되어야 한다.

한인교회 성도들은 가정에서 한국어를 사용하지만 2세들은 청소년기에 접어들면서 부모와 소통이 문제가 된다. 주일학교에서 영어를 사용하는 경우, 이런 현상은 더욱 확대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교회와 가정이 신앙교육에 협력해야 한다. 가정에서 부모들은 가정예배, 큐티, 자녀와 신앙적인 대화 등의 방법으로 신앙교육을 보다 철저히 해야 한다. 교회적으로도 교회 전체 회중과 교회학교가 함께하는 교육이 필요하다. 한 한인교회는 목회와 교육의 갭을 없애기 위해 주일학교 교육에 부모들이 참여하도록 하고 있다. 부모들이 교육활동을 지원하고, 월 1회 정기적으로 함께 활동함으로써 학생들이 교회의 가족임을 인식하고 부모들 역시 활력을 얻고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

5. 재미총회 교육관련 기구의 조정

제30회 재미총회 당시 총 교회 수는 131교회에 불과하였지만, 교육관련 기구가 상비부 2개, 상임위원회 4개로 지나치게 많고 효율적이지 못하였다. 이러한 조직의 난맥상은 제32회 총회에서의 기구조정으로 극복되었는데, 이제 교육관련 기구가 기구적인 통일성을 갖추었지만, 본질적인 사명을 따라 사역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우선 초기에는 총회교육위원회 총무 제도를 도입하여 총회 교육사업을 행정적으로 관장하고, 한국총회의 총회교육원과 같은 기구를 설치하여 전문인력을 유급으로 채용하여 교회교육 전반에 걸친 사업을 전개할 필요가 있다. 이는 미국 유학을 왔다가 교육학박사 학위를 받고, 귀국하지 않고 재미총회 산하교회에서 교육 혹은 담임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준비가 어렵지 않다. 다만, 실천적인 현장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를 준비할 기회를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본다.

총회교육위원회가 해야 할 사업에는 정기적인 교회교육 센서스, 교회학교 교재의 추천, 한국총회 교육원과 협력하여 한인교회 교회학교 교재개발, 전국교회 교육지도자 세미나, 노회 단위의 교육과 목회 연구, 지역별 교사강습회 실시가 가능할 것이다. 나아가 기독교교육 분야를 전공한 전문인력이 재미총회와 산하교회의 교회교육을 전담하여 연구하고, 지역교회의 교육을 지원하는 시스템을 갖추어야 할 것이다.

한국총회 교육원에서는 지난 30년간 교회교육 연구와 개발, 교재개발과 다양한 목회 자료들이 축적되어 있어, 재미총회와 해외총회에 인적, 물적 자원을 협력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통해 양 총회는 개혁주의 신앙의 세계교회 건설에 함께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6. 재미총회 정체성 강화와 승계

재미총회는 고신교회로서의 정체성 강화를 위한 목회적, 교육적 노력이 요청된다. 고신교회는 한국장로교회 가운데 역사적으로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 고신교회는 한국교회에서 한상동과 주남선 목사의 순교정신, 박윤선과 이근삼 박사의 개혁주의 신학, 손양원 목사와 장기려 박사의 사랑의 실천, 송상석 목사의 절제운동 등으로 형성된 독특한 신앙과 경건을 형성하고 있다. 재미총회는 이러한 아름다운 신앙유산을 체계화하고, 이를 계승 발전시킬 책임이 있다. 오늘날 대부분의 한인교회들이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순복음 등의 특성을 나타내지 못할 뿐만아니라 서로 혼돈되고 있다. 교회 이름들도 교파를 초월한 이름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역교회에서 고신교회 정체성의 지나친 강조가 다양한 교파에서 온 성도들의 반감을 얻을 수 있지만, 고신교회의 정체성의 약화는 '우리가 왜 고신교회에 속해야 하는가?'의 질문에 대해 고신교회로서의 존재의의를 상실할 수 있다.

고신교회는 정체성 강화와 분명한 역사의식을 갖게 할 필요가 있다. 이는 단순히 고신교회의 영성에 대한 강조만 아니라, 이 시대에 개혁교회로서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는 것을 말한다. 이를 위해 총회나 노회에서 정지적인 역사교육이 있어야 할 것이고, 노회, 시찰회, 혹은 지역 내 교회들의 연합집회등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2018년 9월에 개최하였던 서부노회 설립 30주년 기념 연합집회는 좋은 예가 될 것이다. 노회 단위로 개최되는 SFC수양회에서 역사교육과 정체성 교육이 따라야 할 것이다.

7. 사역자 네크워킹과 인적 자원의 활용

제16회 총회에서 차세대 사역자를 위해 차세대위원회를 구성하고[16] 영어권 사역자들을 수용하는 결의를 하고, 초기 수 년 동안 세미나를 개최하는 등 활발히 진행하는 등 노력을 기울여 왔으나, 이 논의가 진전을 이루지 못하였다. 영어사역자가 많지 않고 교회에서 총회 참가를 지원해주지 못해 재미총회에 참여하고, 소속감을 갖는 등이 어려운 현실에서 상비부 조직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활동도 없어 유명무실한 실정이다. 재미총회 산하 교회에서 교육을 담당하는 EM사역자들의 네트워킹이 강화되어야 이들이 소속감을 갖게 되고, 장차 재미총회를 이끌어 갈 수 있을 것이다. 초기에는 참가비 지원을 총회, 혹은 노회 단위로 지원을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현재 미국 신학교육기관에 유학중인 고신출신 유학생들이 30명이 넘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들이 각자 열악한 환경 가운데서 학위과정을 하고 있는데, 이들이 생활의 필요를 따라 다양한 교회에서 협동목사로 혹은 교육기관 담당으로 봉사하고 있다. 이들이 유학을 마치고 귀국하는 경우가 있지만, 더러는 한인교회 사역자로 봉사하다가 교회의 청빙

16) 제32회 총회 자료집, 98.

을 받아 교단을 이탈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이러한 현상은 고신교회가 오랜 세월 동안 양성한 인적자원을 낭비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재미총회와 한국총회는 이들을 위해 신앙적, 신학적, 사회적, 재정적인 관심과 지원을 고려해야 한다. 지역 노회 단위로 정기적으로 유학생들을 격려하는 모임을 갖고, 학위과정을 마칠 때는 논문발표회와 축하 모임을 열어주는 것이 효과적인 격려하는 방법일 것이다. 연구비 보조, 논문 발표의 기회 제공, 신진학자 논문발표회 등도 효과적일 것이다.

참고문헌

재미한인예수교장로회 총회,《재미총회 10년사》, 서울: 총회출판국, 1995.

재미한인예수교장로회 총회,《재미총회 20년사》, 서울: 총회출판국, 2005.

재미한인예수교장로회 총회,《재미총회 30년사》, 서울 총회출판국, 2015.

〈재미한인예수교장로회 총회 총회 규칙〉. 제31회 총회 회의안 및 보고서. 2016.

〈재미한인예수교장로회 총회 총회 규칙〉. 제32회 총회 회의안 및 보고서. 2017.

권상길,《디아스포라 2세 교육목회》, 서울: 예영거뮤니케이션, 2009.

오상철,《이민신학》, 서울: 쿰란출판사, 2008.

정민철, “한인 2세들의 영성의 현주소-Almost Christian”, 〈크리스찬 위클리〉, 2016. 10. 27.

조성국 외, 오늘의 주일학교, 어떻게 할 것인가?: 다음세대의 출석감소 원인분석과 성장 대안 마련에 대한 연구보고서, 서울: 총회교육원, 2017.

총회교육원 편,《해외동포 신앙교육》, 서울: 생명의 양식, 2008.

〈크리스찬투데이〉, 2017. 1. 24.